

# 도민 삶의 만족도 높아지고, 걱정은 줄고

## 전북특별자치도, '2023 전북 사회조사' 결과 발표 10년 후에도 거주 77.9%로 2021년 대비 2.3%p 증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12일간 진행한 '2023 전북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 전북 사회조사'는 전북 1만 3,515개 표본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2만1,323명)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도 특성항목 등 7개 부문(조사항목 44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자신의 삶(6.55점), 지역생활(6.40점), 어제 행복(6.53점), 어제 걱정(4.10점)으로 2021년 대비 자신의 삶(0.15점), 지역생활(0.20점), 어제 행복(0.23점)은 증가하고, 어제 걱정(3.90점)은 감소했

다. 교육의 경우 평생교육 희망강좌 1순위는 스포츠 레저 관련 교육(16.4%), 건강 관련 교육(15.5%), 직업 및 업무 관련 교육(13.6%)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는 교육 환경(34.0%), 보육 환경(50.8%), 교육기회 충분성(30.5%)으로 2021년 대비 교육 환경(6.4%p), 보육 환경(13.4%p), 교육기회 충분성(6.1%p)이 모두 증가했다.

보건·의료와 관련,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도민은 67.9%로 2021년 대비 0.4%p 증가하였고, 향후 하고 싶은 운동은 수영(19.5%), 골프(14.1%), 걷기(14.0%), 요가(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3.0%로 2021년 대비 3.2%p 증가하였고,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진료/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30.7%), 치료 결과가 미

흡(16.2%), 불전절(14.4%)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및 교통과 관련, 10년 후 전북 거주 의사있는 도민은 77.9%, 현재 시군 거주 의사있는 도민은 77.0%로 2021년 대비 각각 2.3%p, 3.7%p 증가했다. 통학·통근 시간은 교통수단은 24.0분, 도보는 12.1분이고, 통학·통근 시간 단축을 위한 필요사항은 상습 정체구간 해소(44.9%),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21.1%), 출퇴근 시차제(18.9%)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만족도는 녹지환경(50.3%), 수질(47.5%), 토양(43.2%), 소음·진동(41.2%), 대기(36.8%)로 2021년 대비 녹지환경(-3.1%p), 수질(-5.0%p), 토양(-3.6%p), 소음·진동(-1.7%p), 대기(-9.9%p) 모두 감소했다.

여가와 문화 관련,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 찬성은 71.6%, 만족은 56.4%로 2021년 대비 찬성(11.7%p), 만족(5.3%p)이 모두 증가했다. 지역 문화예술행사 불만족한 이유는 내용이 다양하지 않음(31.4%), 수준이 낮음

(18.8%), 준비 부족(17.8%), 비쌌(13.3%)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안전과 관련, 야간 보행 중 두려움을 느낀 경험은 25.6%로 2021년 대비 1.0%p 감소했다. 두려움의 주요 원인은 인적이 드물어서(61.9%), 가로등이 없어서(34.1%)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34.2%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했고, 2021년 대비 7.2%p 증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2024년을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하며, "전북 사회조사 참여로 도정 발전에 힘이 되어주시는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 높은 정책을 개발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 전북 사회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전북소개-도정자료-통계로 본 전북-통계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 모집

### 도내 거주 미취업 청년,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14일부터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사업 참여자 2천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공공일 기준 전월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18~39세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수당과 구직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진로탐색 및 취·창업에 도움을 줄 구직역량 강화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수당을 지급받는 중 취·창업에 성공하면 취·창업성공금 50만원(1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자격증접수비, 면접 준비비용 등에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식비 등)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4일부터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홈페이지(<http://joyouth.ezweel.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전북자치도는 4월 중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사전교육 진행 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민선8기 공약으로 확정하고 2023년 첫 시행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입용고 시 실패 후 단기 근로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려니 막막했다"며, "수당 지원을 받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어 자신감도 생기고, 원하는 기업에 면접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창에 거주하는 B씨는 "단기근로를 3개씩 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니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없어 불안했다"며, "수당 지원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이제는 받는 입장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홍식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통해 도내 미취업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복지부 "의대 증원, 4월 전 학교별 배정" ... 의협 주장 반박

### 의사 집단 행동 관련 브리핑 전날 1만3654곳 운영 공백 없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판하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 차관은 전날 열린 전공의 단체 임시 총회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결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6899개 의료기관과 6756개 약국이 문을 열어 연휴 기간 의료 분야에 공백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최근 의사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의대 정원 발표의 선거용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 죽이기 또는 노예화 △정부 강경대응 △과도한 증원 규모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보 재정 과다 등에 대한 주장에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복지부는 (선거가 있는) 4월 전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

고 환자 결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19년 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뤄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스

## 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 3월 8일까지 캠페인 병행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봄 개학을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 및 업소를 대상으로 13일부터 3월 8일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밀집지역이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지역 대상으로 대학 주변, 신시가지 거리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전 지킴이와 함께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제한(밤 10시 이후)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행위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위에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063-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http://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도와 시군에서 해당사항을 조사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